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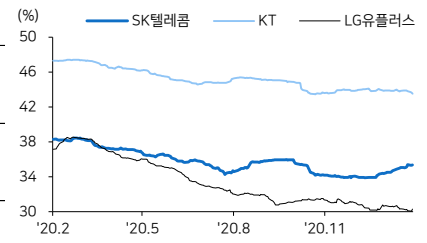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2.15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0.9	-1.5	24.7	28.2	14.8	14.8	1.2	1.2	1.6	1.6
통신업종	0.4	-2.6	5.6	2.8	9.1	9.1	0.7	0.7	4.3	4.3
SK텔레콤	0.4	-3.5	7.2	1.7	14.9	10.0	0.8	0.8	4.1	4.2
KT	-0.4	0.4	3.0	-5.1	9.1	7.7	0.4	0.4	4.7	5.2
LG유플러스	1.2	0.8	8.7	1.6	7.5	8.1	0.7	0.7	3.4	3.8
AT&T	-0.4	0.7	-0.4	-3.7	9.1	9.2	1.1	1.3	7.2	7.3
Verizon	-2.0	-5.0	-11.2	-7.4	11.2	10.7	3.2	2.9	4.6	4.7
T-Mobile	-1.3	-3.8	-3.5	7.2	43.4	43.9	2.2	2.5	0.0	0.0
NTT	4.4	2.0	13.3	6.3	12.1	11.1	1.1	1.4	3.4	3.6
KDDI	3.2	1.9	6.8	1.0	12.1	11.6	1.7	1.6	3.4	3.6
Softbank	11.6	17.7	46.9	52.5	N/A	8.1	2.4	2.6	0.4	0.4
China Mobile	0.3	3.3	-5.1	-19.6	7.5	7.3	0.7	0.7	7.3	7.4
China Unicom	3.5	-9.6	-10.6	-22.5	9.0	7.9	0.3	0.3	4.5	5.0
China Telecom	-1.8	-0.4	-10.8	-14.6	7.0	6.8	0.4	0.4	6.2	6.5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SKT 35.4% (Flat WoW, +1.0%p MoM)
KT 43.5% (-0.3%p WoW, -0.4%p MoM)
LGU+ 30.3% (+0.2%p WoW, -0.4%p MoM)
LGU+ 외국인 지분을 반등 기록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2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3%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LGU+의 외국인지분율이 반등에 성공하며 경쟁사 대비 Outperform 기록
4Q20 KT는 통신 본업의 매력과 배당 매력에 부각된 실적 발표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LGU+,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인 LGU+, SK텔레콤 순매수,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국내 통신 3사 2021년 합산 CAPEX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나 5G 기지국 투자 규모는 증가할 전망
미국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5G 통신장비 수주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5G 투자 본격화
삼성전자의 AT&T 장비 수주 여부가 국내 5G 통신장비 섹터センチ먼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	8	9 KT 4Q20 실적발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주간 뉴스

▶ 작년 5G로 더 벌고, 올해 5G로 투자비 더 쓴다 (ZD Net Korea)

- 5G 가입자 확대로 지난해 무선 사업 실적 개선을 이뤘던 통신 3사가 올해는 투자를 크게 늘릴 전망
- 전국망 구축 목표 달성 및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조건에 의해 무선국 구축 투자에 집중해야될 시기
- 투자를 줄였던 작년과 달리 5G 매출은 늘리면서 커버리지 확대 등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증가 예상
- ⇒ CAPEX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LTE, 3G 가입자의 5G 전환으로 수익성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
- ⇒ 이전까지 고려하지 않은 SA 모드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도 올해부터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통신 3사 IPTV 미디어 사업, 지난해도 웃었다 (ZD Net Korea)

- IPTV, 유선방송사업 등 미디어 사업을 하는 통신 3사 혹은 연결 자회사의 관련 매출은 대부분 증가
-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곳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으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KT와 LG유플러스도 IPTV 매출 및 누적 가입자 수가 YoY 증가하면서 연간 매출에 기여
- ⇒ 플랫폼 기반 매출 증가와 고가치 가입자 유치가 통신 3사 미디어 사업 상승세의 결정적 원인
- ⇒ 2021년에도 통신 3사의 전통적인 통신업에서 벗어난 체질 개선은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

▶ '화웨이 참여' 브라질 5G 입찰 시동...노키아 회동 (더구루)

- 브라질 정부 대표단이 핀란드 에수푸 노키아 본사를 방문해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 협업을 검토
- 브라질 정부 대표단은 삼성전자, 스웨덴 에릭슨, 일본 NEC·후지쯔, 화웨이 등과 추가 논의할 예정
- 브라질 정부는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두고 고심해 왔으나 화웨이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
- ⇒ 브라질은 2025년까지 5G 인프라 구축에 약 92억 헤알(약 1조91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
- ⇒ 화웨이의 추가 입찰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통신장비 업계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LGU+, 5G 주파수 더 달라...정부에 요청 (파이낸셜뉴스)

- LGU+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5G) 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
- LGU+는 3.5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에 비해 5세대(5G) 주파수가 20MHz 폭 적은 상황
- LGU+는 5G 공동구축으로 동일한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
- ⇒ LGU+의 요청은 5G 전국망 확대와 5G 품질 확보라는 명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 LGU+ 입장에서 도 5G 주파수 추가 확보는 품질 향상은 물론 가입자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

▶ 과기부-통신3사 "28GHz 대역 공동검증, 국민통신비 경감 힘 모으자"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28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공동검증, 상용화 가능성 모색
- 실제 정부와 이동 3사는 광화문 일대에서 28GHz 대역 옥외성능을 검증해 통해 대응방안 모색
- 통신3사는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기간 유예한 사례를 5G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 향후 3사가 순차적으로 지역 선정, 기업서비스(B2B) 중심으로 상용화 테스트를 지속할 전망
- ⇒ 28GHz 투자 관련 문제 관련 향후 28GHz 대역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의제화가 불가피할 전망

▶ 삼성전자 vs 에릭슨, 美 ITC 소송 본격화...속내는? (디지털데일리)

- ITC,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특정 무선 통신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
- 삼성전자의 소송 상대는 에릭슨, 삼성전자는 현재 에릭슨이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중
- 에릭슨도 삼성전자 대상 '무선 통신 및 구성요소 포함한 특정 전자기기 및 제품' 소송 진행
- ⇒ 양사 갈등 원인은 특허사용료, 2014년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조약 관련 재협상 진행 중
- ⇒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판매가 막히기 때문에 5G 이동 통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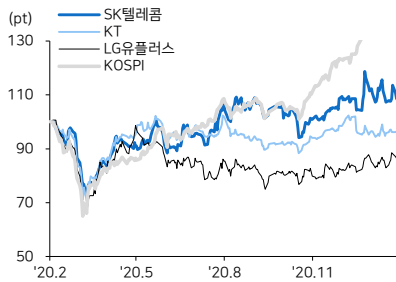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246,000	18.0	17.5	18.2	1.3	1.5	1.7	2.1	5.1	5.1	5.2	5.1	8.0	8.9
	KT	24,200	5.7	22.2	22.8	1.2	1.3	0.7	0.8	4.6	4.6	2.4	2.4	5.7	6.3
	LG유플러스	12,500	4.9	12.5	13.1	0.9	1.0	0.6	0.7	3.1	3.2	3.2	3.1	8.7	9.4
미국	AT&T	28.8	205.2	173.2	174.3	32.1	33.0	22.0	22.7	54.4	55.6	6.8	6.7	13.1	13.4
	Verizon	54.2	224.3	133.0	135.4	32.0	32.9	21.0	21.7	48.8	49.8	6.8	6.7	31.4	35.5
	T-Mobile	123.7	153.6	78.3	80.6	8.0	10.1	3.5	4.9	26.9	28.5	8.2	7.7	6.1	6.3
일본	NTT	2,806	104.3	111.6	113.1	15.5	15.8	8.8	10.0	29.7	30.0	5.9	5.8	90.9	12.9
	KDDI	3,315	72.8	50.2	51.2	10.0	10.1	6.3	6.3	16.9	16.9	5.2	5.2	14.4	13.7
	Softbank	9,797	195.1	54.3	56.1	17.6	9.4	18.7	6.0	25.0	15.2	12.8	21.0	32.2	9.8
중국	China Mobile	47.5	125.3	122.2	126.8	18.3	18.7	17.2	17.8	45.8	47.2	1.4	1.3	9.3	9.2
	China Unicom	4.5	17.6	48.4	50.6	2.2	2.6	2.3	2.6	15.4	15.8	1.2	1.2	4.4	5.0
	China Telecom	2.2	23.2	63.0	65.5	4.7	5.0	3.5	3.8	19.2	19.8	1.8	1.7	6.2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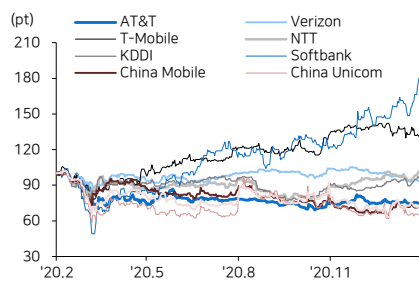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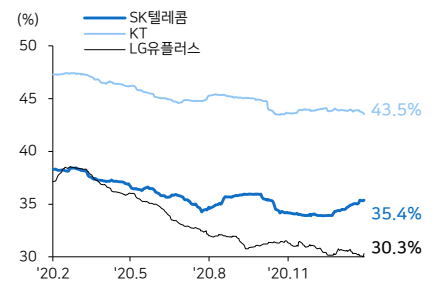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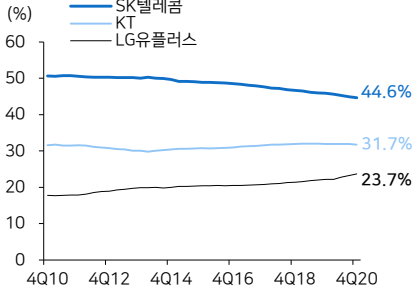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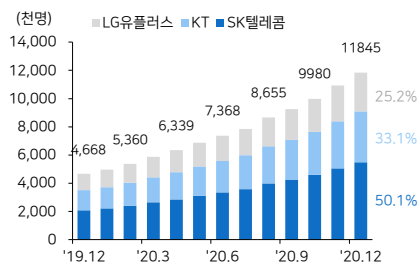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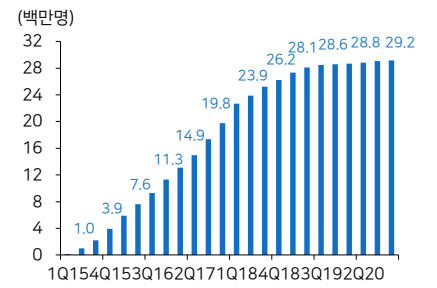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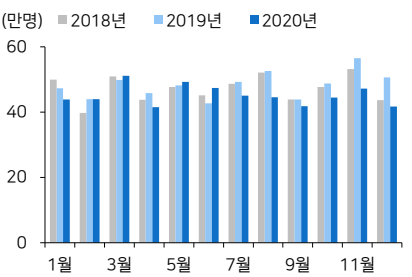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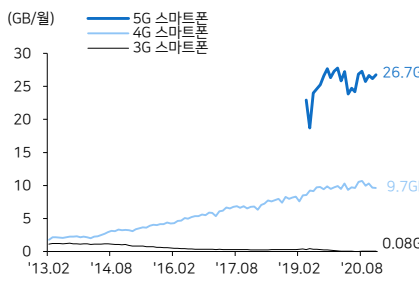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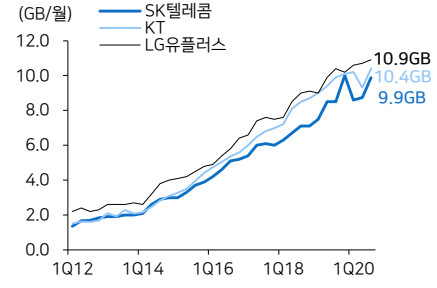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